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Executive Summary	i
1.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평가	1
2. 항목별·성향별 평가	2
3. 시사점	5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6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7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
【HRI 경제 통계】	13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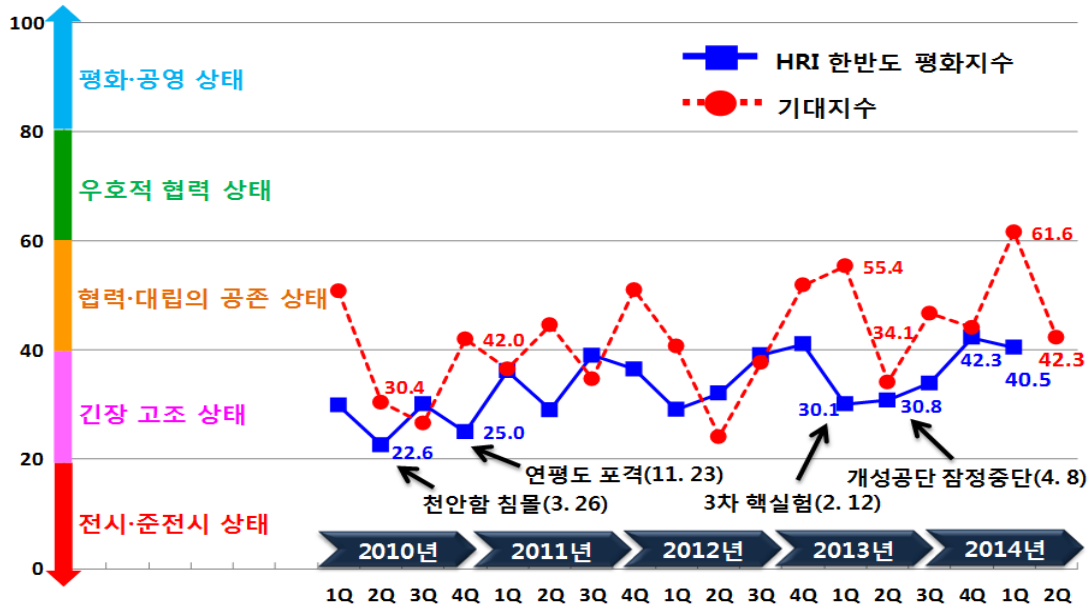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6일간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합 평가) 북한 4차 핵 실험 가능성과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 지속으로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했다.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전기 대비 1.8p 하락한 40.5를 기록함으로써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했다. 한편,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9.3p 크게 하락해 전문가들의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말 對 말' 공방전 지속,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위협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크게 하락한 31.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상태에서 '긴장고조 상태'로 악화됐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위협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발언 지속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0보다 10.6p 큰 폭 상승한 49.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등으로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6.1p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인도적 지원(4/4분기 150만 달러→1/4분기 170만 달러), 남북교역(4/4분기 3억 5,800만 달러→1/4분기 5억 400만 달러), 이산가족 상봉(4/4분기 1건→1/4분기 171건) 등의 실적에 기반한다.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2014년 1/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1.1, 31.1, 26.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0.8p, 14.9p, 21.2p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하락폭은 21.2p로, 이는 중도 성향(14.9p)은 물론 보수 성향의 10.8p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2014년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0.0p이상 하락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1.4p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을 비롯해 북핵 문제 미해결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한반도의 상호신뢰회복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우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색국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안을 비롯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축소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1.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 평가)

○ 북한 4차 핵 실험 가능성과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 지속으로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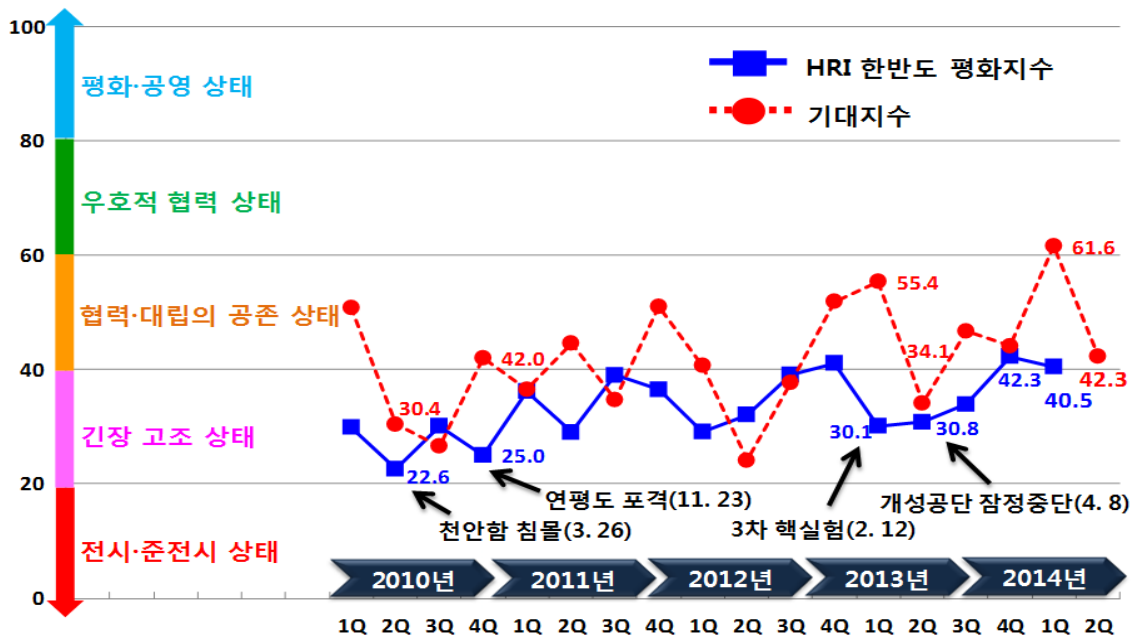
- (평화지수) 1/4분기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1.8p 하락한 40.5를 기록함으로써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

- 이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위협과 남북한 긴장고조 발언 등에 기인
-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2.20~25),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 승인(2.21),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 생산 확대 등은 평화지수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평가

- (기대지수) 전기 대비 19.3p 크게 하락해 전문가들의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말 對 말' 공방전 지속,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위협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임.

2. 항목별·성향별 평가

○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비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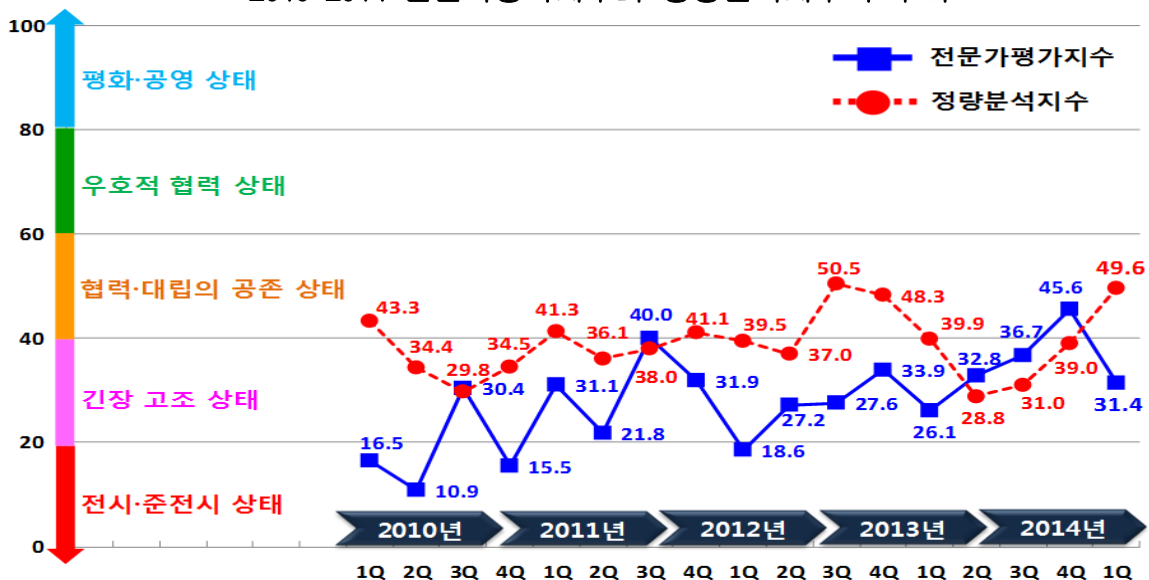
(1) 전문가평가지수 (2013년 4/4분기 : 45.6 → 2014년 1/4분기 : 31.4)

- 총 119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4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
-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크게 하락한 31.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상태에서 '긴장고조 상태'로 악화
-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위협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발언 지속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 정량분석지수 (2013년 4/4분기 : 39.0 → 2014년 1/4분기 : 49.6)

- 1/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0보다 10.6p 큰 폭 상승한 49.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등으로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6.1p 대폭 상승한데 따름

< 2010~2014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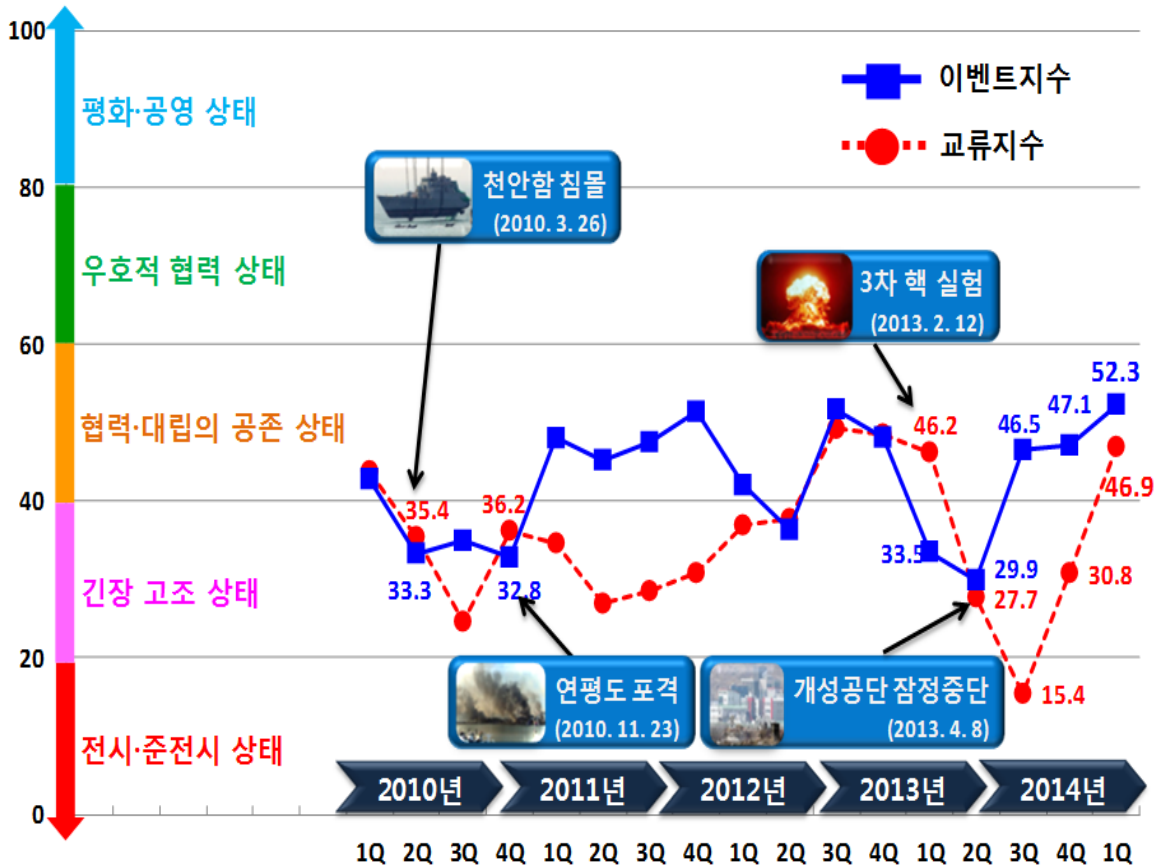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3년 4/4분기 : 47.1 → 2014년 1/4분기 : 52.3)

- 이벤트지수는 이산가족 상봉, 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등으로 5.2p 상승
- 그러나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따른 북한의 반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추가 인상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상승 폭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교류지수 (2013년 4/4분기 : 30.8 → 2014년 1/4분기 : 46.9)

-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16.1p 크게 상승한 46.9를 기록, 2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전 수준으로 복귀
-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인도적 지원(4/4분기 150만 달러→1/4분기 170만 달러), 남북교역(4/4분기 3억 5,800만 달러→1/4분기 5억 400만 달러), 이산가족 상봉(4/4분기 1건→1/4분기 171건)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

< 2010~2014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

- 1/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1.1, 31.1, 26.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0.8p, 14.9p, 21.2p 크게 하락함
 - 진보 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하락폭은 21.2p로, 이는 중도 성향(14.9p)은 물론 보수 성향의 10.8p에 비해 약 2배에 달함
-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0.0p 이상 하락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1.4p 크게 하락
 -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을 비롯해 북핵 문제 미해결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0.5 (▽1.8)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42.3 (▲8.4)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3. 시사점

- 첫째, 우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색국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 남북 간 대화는 지난 2월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남북고위급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이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대화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 남북 간 대화 부재에 따라 남북은 '말 對 말'의 극단적 언쟁만 지속 중
 -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안을 비롯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 :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우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청소년 교류 :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남북 청소년들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류를 확대
 - 체육 교류 :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공동입장, 2015년 7월의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유도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

-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축소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의 의미임
 - 현재 남북경협은 개성공단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이 요구됨 **HRI**

이용화 선임 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²⁾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2)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4년 4월 30일 ~ 5월 15일 (16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2.7	2.3
2. 그렇지 않다	51.3	22.7
3. 보통이다	25.2	48.9
4. 그렇다	0.8	25.0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2.7	9.1
2. 그렇지 않다	57.1	23.9
3. 보통이다	17.6	45.5
4. 그렇다	2.5	18.2
5. 매우 그렇다	0.0	3.4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1	5.7
2. 그렇지 않다	52.1	39.8
3. 보통이다	31.9	51.1
4. 그렇다	0.8	2.3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8	4.5
2. 그렇지 않다	16.8	20.5
3. 보통이다	37.8	38.6
4. 그렇다	42.9	34.1
5. 매우 그렇다	1.7	2.3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5	0.0
2. 그렇지 않다	65.1	31.8
3. 보통이다	13.4	46.6
4. 그렇다	0.0	20.5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6	0.0
2. 그렇지 않다	42.9	12.5
3. 보통이다	34.5	33.0
4. 그렇다	14.3	52.3
5. 매우 그렇다	0.8	2.3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6.0	5.7
2. 그렇지 않다	50.4	39.8
3. 보통이다	30.3	46.6
4. 그렇다	2.5	8.0
5. 매우 그렇다	0.8	0.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	1.1
2. 그렇지 않다	30.3	12.5
3. 보통이다	38.7	37.5
4. 그렇다	26.1	44.3
5. 매우 그렇다	2.5	4.5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	2.3
2. 그렇지 않다	29.4	21.6
3. 보통이다	53.8	46.6
4. 그렇다	14.3	29.5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	2.3
2. 그렇지 않다	26.1	22.7
3. 보통이다	42.0	53.4
4. 그렇다	29.4	21.6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3	1.1
2. 그렇지 않다	58.0	33.0
3. 보통이다	26.9	58.0
4. 그렇다	0.8	8.0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7	2.3
2. 그렇지 않다	29.4	11.4
3. 보통이다	42.0	25.0
4. 그렇다	21.8	60.2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1	0.0
2. 그렇지 않다	47.9	22.7
3. 보통이다	36.1	42.0
4. 그렇다	5.9	34.1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3	4.5
2. 그렇지 않다	59.7	37.5
3. 보통이다	24.4	52.3
4. 그렇다	1.7	5.7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8	5.7
2. 그렇지 않다	47.1	29.5
3. 보통이다	34.5	58.0
4. 그렇다	6.7	6.8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6	2.3
2. 그렇지 않다	49.6	29.5
3. 보통이다	37.0	54.5
4. 그렇다	0.8	13.6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	1.1
2. 그렇지 않다	33.6	9.1
3. 보통이다	39.5	31.8
4. 그렇다	21.8	55.7
5. 매우 그렇다	0.0	2.3
계	100.0	100.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8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6	2.7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1	2.5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8.0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4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9	370	
	통관기준	수출(억 \$)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83	6,067
		증감률(%)	(-1.3)	(0.3)	(0.7)	(2.8)	(4.7)	(2.1)	(2.2)	(8.4)
	수입(억 \$)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5,697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1)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2.4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